

골롬반 선교

2019년 봄호 vol.110



우리는 선교사
부부 선교사로 살기
조성근 제노비오 부제서품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19년 봄호 vol.110

편집실 Tel. 02-927-2705
E-mail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E-mail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우리는 모두 선교사 임영준 에이몬 신부

우리는 선교사 04 외방선교회 장상을 만나다

10 제25차 해외선교사교육

선교사의 창 12 점쟁이와 신부 오록 케빈 신부

평신도선교사 14 부부 선교사로 살기

이지영 크리스티나, 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

부제서품 16 새 부제 탄생, 조성근 제노비오

파키스탄 이야기 18 삼촌이 사는 나라, 파키스탄 카롤 킹(Cathal King)

그림 묵상 20 부활 안재선 제이슨 신부

다시 읽는 선교잡지 22 강원도 선교를 시작하며

구인란 토마스 신부, 민 디오니시오 신부

나의 성소 이야기 24 곤잘로야, 무얼 하고 있니? 권세오 곤잘로 신부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Peregrinatio pro Christo

표지 골롬반회 부부 선교사 이지영 크리스티나, 김정웅 요한 보스코

발행일 2019년 3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임영준 에이몬 신부 | 편집장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편집위원 오기백 다니엘 신부, 최두레 유스티나, 김소영 세 실리아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동진인쇄

우리는 모두 선교사

임영준 에이몬 신부 • 한국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절 중 봄이 제일 좋습니다. 긴 추위가 끝나면 꽃과 새싹이 다시 우리 곁에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생기 넘치는 계절에 선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난제 중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해석하는데,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 묻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입사 면접을 볼 때 자주 받는 질문이 “경험이 있는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선교와 선교사라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하면 비슷한 난제가 생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평신도가 먼저냐, 선교사가 먼저냐, 어떤 부르심을 먼저 받는가? 등등. 저 역시도 신학교에 다녔을 때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또한, 사제품을 받은 후에는 “신부가 먼저냐, 선교사가 먼저냐?” 하는 난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는 복잡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생각의 패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순서를 찾아서 그 순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이 세상의 많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잠시도 살 수 없듯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관계(사이)를 뜻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수어지교의 예를 들면 바닷물과 짬뽕, 해와 더위, 커피와 향 같은 것이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 한다면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주교 신자라면 동시에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로서 우선 살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다른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외방선교회 장상을 만나다

● 필리핀외방선교회

필리핀 천주교회는 400주년을 맞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가톨릭 국가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웃 교회에 전할 책임을 느끼고 1965년에 외방선교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미국, 중동, 태국,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12개 나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견된 지역 교회를 돕는 일뿐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가는 필리핀 국민들을 도우며 그들을 선교의 동반자로 초대하고 있다. 1992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돕는 활동을 한다.

“**무**수한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영양을 얻은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풍요로운 사제성소를 볼 때, 더 수월하게 파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락함을 뒤로하고 제3세계에 가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한국 신자들의 충실한 믿음은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는 그들의 경건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 진보적인 사회이지만 신앙심을 잃지 않습니다.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봉사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헌신하는 한국 신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영감을 얻습니다.”

알프레도 신부는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이주민 의료 지원, 본국 송환과 부당 노동 행위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알프레도 신부가 담당하는 필리핀 이주민 미사가 서울 혜화동성당에서 봉헌된다. 큰 성전이 가득 차고도 자리가 모자라 서 있는 이들도 많았다.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선교는 보람 있고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선교사들도 이주민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깊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관 가운데서, 목자로써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경험을 가진 양들과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양 냄새가 났,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도 아프리카 신부 Alfredo Africa Jr.

필리핀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



외방선교회는 지역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외국 선교회의 도움에 힘입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받는 교회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섯 개의 외방선교회가 일하고 있습니다. 파리와방전교회, 메리놀외방전교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과달루페외방선

교회, 필리핀외방선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설립한 한국외방선교회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입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롬반선교』는 외방선교회를 소개하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장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 서도 필요한 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선교사로 파견하였고, 그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외방선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까요. 때로는 외방선교회가 더 필요하다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서울국제선교회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성장하면서 사제가 부족한 중남미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지역 교회를 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1999년부터 6년간 칠레에서 활동했던 송영호 신부는 서울대교구에서 소속 사제들이 해외에 나가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제가 탄생한 서울대교구는 교구 사제들의 10%를 목표로 해외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학생들의 해외선교 체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하려는 사제들이 늘고 있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어놓으신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민족을 만나서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오면 서울대교구는 이 사제들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깨어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인 선교사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버려진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한국인은 외세의 정복도 당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 고통 가운데서 성장해서 그런지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들 사이에 더 겸손하고 쉽게 녹아 들어갑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함께 선교합시다.”

●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중남미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한故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서울대교구)는 선교회 설립을 목표로 2000년 초부터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울국제선교회는 2011년에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회칙 승인을 받으며 외방선교회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한국인 청년을 선발하되, 양성은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의 성 요셉 대신학교에서 하고 있다. 서품 후 즉시 선교사로 파견하기 위해서다. 2005년에 첫 신학생 3명이 입학하였고, 현재 5명의 사제가 배출되었는데 1명은 파나마, 3명은 페루, 1명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7명의 신학생이 양성 받고 있다.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대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장

과달루페외방선교회

1938년부터 멕시코 교회는 세계에 사제들을 파견할 때가 왔다는 인식이 커가기 시작했다. 당시 가난했고 박해 시대가 끝난 직후였기에 교회는 불안정하고 사제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멕시코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1949년에 외방선교회를 설립하였다. 교황청은 멕시코 출신 미국 이민자이며 메리놀 외방선교회 회원으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에스칼란테 주교를 초대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한국에는 1961년에 진출하였으며 부산, 서울, 순천, 여수, 인천 등 20여 개 본당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모잠비크, 브라질, 쿠바, 홍콩 등 10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1명의 회원이 서울대교구 자양동성당, 광주 양동시장 내 양동공소, 원목, 과달루페 성모 영성 교육, 생명보호 등 분야에서 일한다.

“**모**든 것을 정복자들에게 빼앗긴 멕시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 낙태, 전염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1531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하시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성모님이 원주민뿐 아니라 모든 이의 어머니, 생명의 수호자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비오 12세 교황의 제안으로 과달루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과달루페 성모님의 영성으로 생명과 희망,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달루페회는 광주대교구장 현 해롤드 대주교(골롬반회)의 초대로 전라남도의 남쪽에서 사목을 시작하였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도왔어요. 우리 신부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도 가난했고 한국도 가난했으니까요. 멕시코 선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멕시코 사람답게 기쁘게 재미있게 일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사는 선교사 모습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왜 살고 있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살, 낙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희망, 행복, 생명 존중, 공동체 같은 좋은 가치, 원래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 문화 함께 만들어야 해요.”

과달루페회는 한국에서 나눈 희망과 행복을 북녘에도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언제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임재민 벤자민 신부 Marin Cano Benjamin
과달루페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

노동사목과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해왔던 임경명 신부는 가난한 이와 노동자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난지도와 플라 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직접 노동자로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이들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와 교회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도와줄 수 있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함께하려면 우리, 가난해져야 해요. 선교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문화도, 사고방식도 모르고, 음식도 못 먹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약한 존재예요. 주인도 아니고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작고, 약한 것, 부족함 통해서 더 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임 신부는 한국에서 우선하는 선교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파리외방전교회는 10년째 유진벨 재단을 통한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활동은 메리놀외방선교회와 과달루페외방선교회도 함께 하고 있다. “북한에 갈 때마다 환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지만,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해 가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타종교와 자주 만나며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가 많으면 좋겠어요.”

파리외방전교회는 단기(1년 이하) 평신도선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이들을 선교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 “해마다 150명~200명씩, 10년 동안 3,000여 명을 아시아로 파견했어요. 현재 두 명의 청년이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봉사합니다. 부부도 참여해요. 남을 위해 봉사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이들은 고국에 가서도 꾸준히 모임을 갖고, 프랑스 사회 안에서 봉사를 해요. 성소자를 찾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단기 선교 체험을 통해서 신학생들과 사제들도 나왔습니다.”

● 파리외방전교회

아시아 포교를 위해 1658년 프랑스에서 창설되었다. 선교지에 종신토록 머무르면서 언어와 풍습을 배워 선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선교 역사에서 의미가 크다. 교회를 조직하고 방인 성직자를 양성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 진출은 1831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순교와 헌신으로 한국천주교회의 뿌리와 거름이 되었다. 아시아에 파견된 4,500여 명의 선교사 중 360여 명이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박해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24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본당, 노동사목, 난민 지원, 교육, 종교 간 대화 등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는 두봉 주교를 비롯하여 10명의 회원이 있으며, 대전 교구 본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북한 결핵 퇴치 사업, 불어공동체, 원목, 청소년 돌봄 등을 하고 있다.

하대건 신부, 유진 선교사, 임경명 신부, 존 선교사
(왼쪽부터)



임경명 임마누엘 신부 Emmanuel Kermaol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 메리놀외방전교회

제임스 월시 신부와 토머스 프라이스에 의해 1911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방인 선교회이다. 1918년 중국으로 첫 선교사를 파견한 데 이어 1923년 한국에 진출하여 평양교구 설정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중국공산화로 수많은 회원이 감옥에 갇히고 죽거나 추방당했다. 이후 남미와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확장하여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47개 나라에 2,000명이 넘는 사제를 파견했다. 한국에서는 인천교구, 청주교구를 맡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고 군중교구 창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족에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아시아 13개국을 비롯해 20개 나라에서 350여 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8명의 회원이 수감자, 노인, 장애인, 북한 결핵 퇴치 지원 사업, 새터민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함 제도 신부는 1995년부터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 NGO 유진벨 재단과 함께 50회 이상 방북하면서 북한 결핵 치료 사업에 공헌해 왔다. 그는 다른 외방선교회와 수도회들을 이 사업에 초청하여 북한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못 가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함 신부의 목주를 보면 한반도 지도 위에 십자가가 있고, 평양에 있었던 메리놀 본부 성당도 새겨져 있다. 그는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 주길 당부했다.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미사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평화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발전하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섭섭할 때가 많아요. 빈부 차이, 노동, 실업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세상 안에 살면서 기도와 희생, 봉사를 하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한국 신자들은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인내심, 이해심 많았죠.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마음 키워가는 교육 했으면 합니다.”

59년째 선교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함제도 신부는 한국인의 해외선교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한국인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일했던 충청도 지역의 사투리로 말하면, ‘하는 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교구별로 평신도, 수도자, 사제를 한 팀으로 파견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귀국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대로 파견하는 방식이지요. 결혼한 사람, 연세 있는 사람도 봉사할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도 단기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능력 충분해요! 선교사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부족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 참 아름다운 말 ‘함께’가 있죠? 선교는 김치 만들기와 같아요. 고춧가루, 배추만 가지고는 김치 못 만들죠. 양념이 있어야 하죠. 혼자서는 못해도 서로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함제도 제라르도 신부 Gerard Hammond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다 른 외방선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회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과 민족을 떠나(Ad Exteros) 모든 민족에게(Ad Gentes) 파견되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Ad Vitam)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창설자 최재선 주교는 1970년대 초,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일찍이 마련하였다. “설립 정신인 ‘감사와 보은’은 나누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주는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자칫 강자와 약자의 논리 가운데 은연중에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 당신들은 받는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선교했을 때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교에서 나누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의미이며,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해외선교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한국 교회에 나누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45년의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선교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 정보, 데이터를 정리하고,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나누기 위하여 작년에 선교학술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교구 사제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는 다른 외방선교회에 비해 젊고 성장해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우고, 또 나누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구와 선교회, 선교회 간, 또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동행하며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은 비록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삶,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해외선교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선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준 것은 별로 없고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훨씬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라온 것과 다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도전은 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외방선교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 한국외방선교회

1975년 한국 천주교가 설립한 최초의 외방선교회이다. 창설자 최재선(사도 요한) 주교는 한국 교회가 받아 온 하느님의 축복과 이웃 교회,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하며, 보은(報恩)이라는 사랑 실천으로 세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설립을 결심하였다. 1981년 첫 선교사를 파견한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하여 멕시코, 모잠비크, 미국, 타이완, 필리핀 등 9개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다. 본당사목이 중심이지만, 한센인,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 돌봄, 빈곤층 자립을 위한 유기농 사업, 직업훈련학교, 무료진료소, 학교와 기숙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부인 한국에서는 신학생 양성, 해외선교사학교, 선교학술연구소 활동 등을 한다. 현재 75명의 회원과 4명의 협력사제(서울대교구, 부산대교구)가 활동하며, 올해 1월, 한 명의 사제와 두 명의 부제가 탄생했다.



김동주 바오로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총장

제25차 해외선교사교육



해외 파견을 앞둔 예비 선교사를 위하여 마련한 <해외선교사교육>이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골롬반 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골롬반회와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올해 교육에는 총 26명(사제 9명, 수도자 14명, 신학생 3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과테말라, 나미비아, 대만, 동티모르, 멕시코, 페루 등 14개 나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 파견미사를 주례한 문희중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해외 선교·교포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교육 수료자들을 축복하며,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 사제와 수도자 성소를 북돋고,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강의와 나눔, 피정, 현장 방문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에서는 선교학, 해외선교 영성, 다문화와 이웃 종교 이해, 국제 사회와 인권, 심리적·영적 성찰, 선교사와 만남, 성폭력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해외선교사교육은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행복하게 선교하도록 힘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1999년부터 매해 한두 차례 열려 지금까지 748명(사제 103명, 수도자 563명, 평신도 82명)이 수료하고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제25차 해외선교사교육을 마치고(사진: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제공)





선교를 마치고 귀국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60년째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파리외방전교회 두봉 주교의 만남을 통하여 선교사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 ▼



국악인 송소란 명창에게서 국악과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놀이를 배웠다.



〈성서에 담긴 생태영성〉을 주제로 강의하는 유정원 교수



옥현진(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가 한국 천주교 역사 안에 서의 외방선교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점쟁이와 신부

오록 신부



골롬반선교센터에 개설된 영시 교실 수업 후 수강생들과 함께

점쟁이는 성당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작은 의자 세 개를 갖다 놓고 의자 두 개를 붙여 그 위에 책을 얹고 가리개를 쳐 놓았다. 본인은 세 번째 의자에 걸터앉았는데, 등 뒤에 벽이 바람을 막아 주었다. 미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성 신자는 (주위에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점쟁이를 찾아가 결혼이나 여행, 이사 같은 중요한 집안 행사를 앞두고 길일을 물어보곤 했다. 20년간 동아시아에서 선교 생활을 했던 그 본당의 사제는 그런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 때와 점쟁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를 잘 알고 있을 만큼 지혜로웠다. 본당 신부는 점쟁이를 항상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였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진지는 잡수셨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 좋은 날, 신부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운수는 대체로 어떤가요?”

“신부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달렸지요.”

“오늘 나무 몇 그루를 심을까 하거든요.”

오록 케빈 O'Rourke Kevin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으로 1964년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외국인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는 등 40여 년 동안 문화교류, 문화 선교의 장을 개척하였다.



1963년 서울 도심 풍경(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점쟁이는 외국인 신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을 펼쳐서 몇 분 동안 들여다보았다. “신부님 오늘 아침은 나무 심기에는 별로고, 음… 세 시 이후에는 아무 때나 좋네요.” 사제관으로 돌아온 본당 신부는 식복사에게 말했다. “오늘 동백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점쟁이가 세 시 이후에 심으면 좋다고 하네요.” “신부님! 그 사람에게 복채는 얼마나 주셨어요?” “천원이에요.”라고 대답하자, 식복사는 물었다. “신부님, 요즘 천원 가지고는 쓸만한 것을 전혀 살 수 없다는 걸 모르세요?”

내가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1964년의 풍경이다. 나는 유럽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아일랜드 출신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도와 전기가 없는 집들이 많이 있었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일랜드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낙원 같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료 선교사제는 내게 한국에서는 킬리 석유램프가 그 어떤 전등불보다 책 읽기에 좋다고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전 국토에 포장도로라고는 백 킬로미터뿐이어서, 버스와 트럭들이 소리를 내며 도로를 달리면 온 천지가 뿌연 모래로 뒤덮여 꽤 속 가득히 모래 먼지가 들어왔다. 가고 싶은 장소에 가는 길은 흥미진진했지만, 모든 땀구멍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착하곤 했다. 먼지로 뒤덮인 도로, 시발택시, 전자, 곳곳이 부서진 교량 등 여러모로 여러

운 형편이었지만, 김 선생과 같은 점쟁이들이 있던 한국은 이국적인 매력이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서울시청 주변에는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찻집과 술집들이 구불구불한 골목길마다 촘촘히 박혀 있었다. 다방에 들어가면 시인 김동리나 서정주 또는 예술계의 중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명성이 높았지만, 익명의 베일 뒤에 숨지 않고 허물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소설가 김승옥은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을 썼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종로 영보빌딩에 있던 화장실 문의 손톱 자국을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다. 서울은 살기에 매우 흥미진진한 곳이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이끌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지난 50여 년 동안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점쟁이들은 존재하고 부인들은 지금도 가족을 위한 길일을 그들에게 묻는다. 이 친밀감이 나의 한국 생활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다. 

* 이 소설은 부조리한 사회 안에서 기계 부품의 일부처럼 살아가며 절망과 소외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묘사했다. 등장인물들은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놀이를 통해 좌절과 권태를 이겨내고자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 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2센티미터가량의 손톱자국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부부 선교사로 살기

이지영 크리스티나·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



“이지영 크리스티나, 김정웅 요한 보스코 평신도선교사는 2007년 4월 대만으로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첫 임기 3년을 마치고 두 사람은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골룸반회 선교사로 계속 일하였고, 아내는 배우자로서 선교 생활을 동반하며 1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식별 과정을 거친 후, 지난 1월 대만으로 다시 파견되었습니다.”

Q 10년 동안 대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김정웅 보육원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고요. 발달장애인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이 산책이나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같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만에 파견되어서 처음 일했던 곳은 에이즈 환자 쉼터였어요.

이지영 저도 쉼터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에이즈 쉼터는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사람답게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병원 일을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환자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간호 일 덕분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

Q 선교 활동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지영 에이즈 환자인데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눴던 형제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로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어요. 그분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은 음료 반입이 금지된 곳이고, 탄산을 마시면 안 되는 환자 상태였지만, 저는 그분의 요청을 들어드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콜라 하나를 사서 나눠 마셨죠. 그때 그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차가운 콜라 한 모금이었거든요. 형제님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동생이 저에게 “당신이 찾아오고, 콜라를 사줘서 오빠가 참 행복했다고, 고마웠다고 말했어요.”라고 전해 주었어요. 형제님이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고맙다는 메시지가 매우 큰 의미가 되었어요. 저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그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김정웅 보육원에서 만난 7~8개월쯤 된 아이인데요. 그 월령의 아이들은 젖병을 물리면 눈도 맞추고 손가락을 잡기도 하며, 방긋 웃기도 하고 신경질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조차 전혀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방치되어 보호나 접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담당자에게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그런 시설은 워낙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에 쪽 눕혀 놓고 입에 젖병을 물려 혼자 먹게 하거든요. 사람 손 탄다고 일부러라도 못 안게 해요. 다행히 허락해 주어서 그때부터 아기를 안고 먹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 봉사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잡은 거죠. 눈도 맞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봉사자들도 아이가 그제야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편이죠. 저희를 통해서 골롬반회 선교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부부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큰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부부 선교사의 삶을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봉사만 하면서 살 수 있느냐며 현실을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같은 부부 선교사가 나가서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삶도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부부가 함께 선교하니 어떤 점이 좋은가요?

김정웅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와 아내는 같은 팀으로 선발되었고 파견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보호해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아내도 좋아해 주었어요. 프리포즈는 에이즈 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저희 몰래 케이크, 반지를 사고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하게 되었어요. 봉사자들과 환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열렬결에 했죠. 한국에 돌아와서 배젤빈 신부님 주례로 결혼식 하고 대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기혼자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선교사의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웅 선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이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원해 보세요.

이지영 “저는 희생정신도 봉사 정신도 없어요. 부족한 게 많아서 선교사 못해요.”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종종 봅니다. 선교사는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처음에 들어올 때 똑같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대로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와서 배우는 거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새 부제 탄생 조성근 제노비오

조성근 제노비오가 2월 1일,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거행된 부제서품식에서 서울대교구 24명, 베트남 랑선교구 1명과 함께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서품식이 열렸던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 골롬반회 선교사, 가족, 후원회원, 출신 본당인 장성성당 신자들이 함께하여 새 부제 탄생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서품식을 이틀 앞둔 1월 30일, 본부에서는 종신서원식이 있었습니다. 조성근 부제는 “종신회원이 되는 오늘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후원회원과 골롬반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새 부제는 2008년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로 칠레에 파견되었는데, 선교사제의 성소를 느끼고, 임기를 마친 후 2012년에 입회하여 서울 가톨릭신학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2월 15일, 제주교구 금악성당으로 발령받아 부제 실습을 시작한 조성근 부제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골롬반 선교

조성근 제노비오

부제서품을 축하드립니다

서품식: 2019년 2월 1일(금) 오후 1시 장소: 올림픽 체조경기장(KSPO DOME)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경

축



같은 날 서품식을 했던 새 사제 26명과 동료 부제 26명과 함께 성인호칭기도를 바칠 때

신학생 시절, 기도와 도움으로 동반해 주었던
골룸반회 기리암 신부가 부제복을 입혀 주었다.



서울대교구 정순택 주교 앞에서 총성서약을 하고 있다.



골룸반 선교사들과 가족들 앞에서 서약문을 낭독하는 조성근 제노비오 부제
(1월 30일, 종신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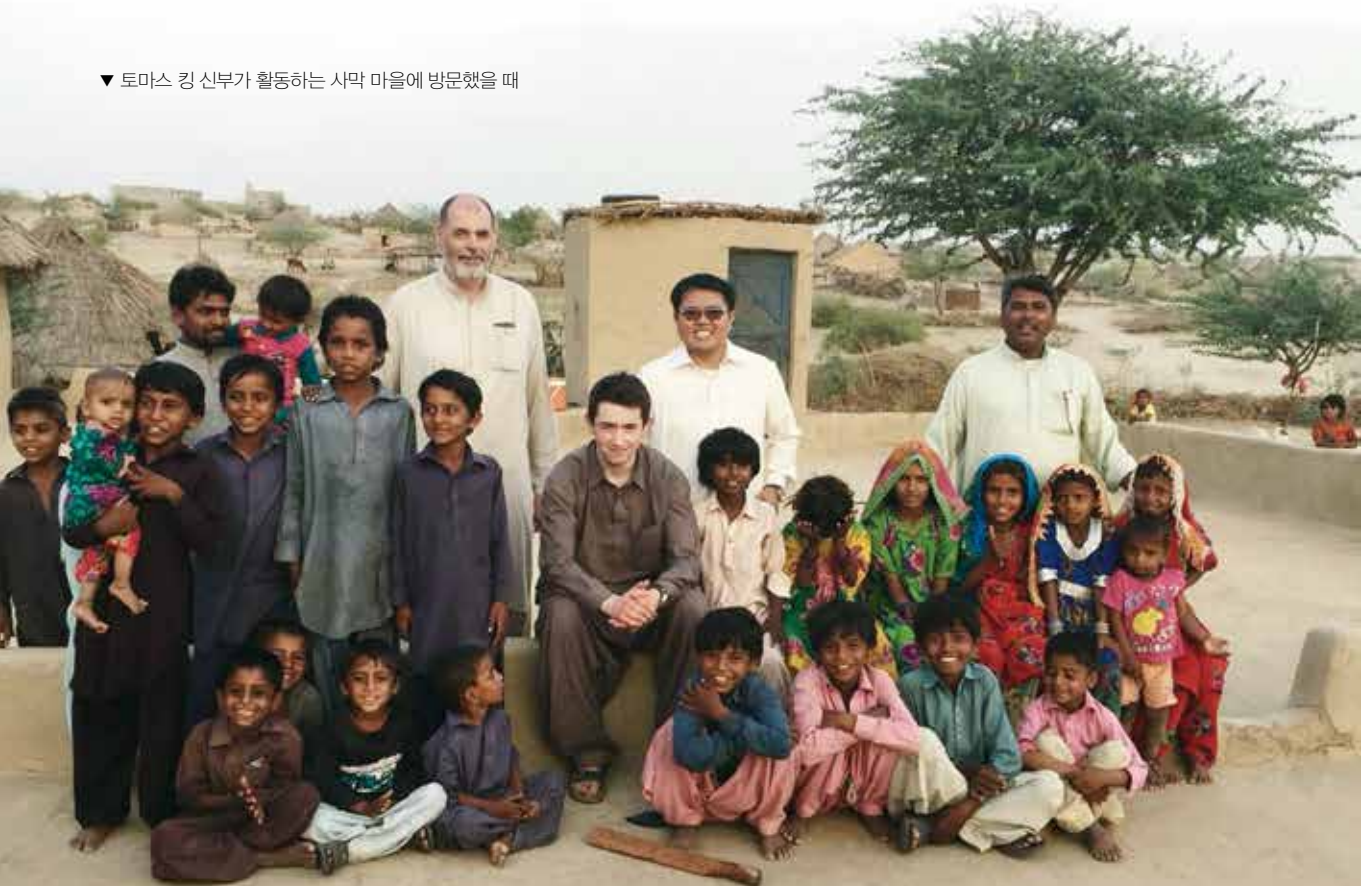
삼촌이 사는 나라, 파 키 스 탄

카홀 킹 Cathal King

저는 17살 아일랜드 남학생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삼촌이 파키스탄에서 일하는 골롬반회 선교사라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토마스 킹(Thomas King) 삼촌은 파키스탄에서 2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르푸르카스의 그리스도

교 신자들이 사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아일랜드 고향 집에 오시는 삼촌의 말만 들어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상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으로 가서 삼촌의 선교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로 했습니다.

▼ 토마스 킹 신부가 활동하는 사막 마을에 방문했을 때



▶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토마스 킹 신부와 조카 카를 킹

그들은 바하왈푸르시에 있는 성 도미니코 성당에 방문했다. 뒤 명판에는 2001년에 이 성당을 빌려 예배 중이던 개신교 신자들을 향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마리아 고모와 함께 파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머무는 2주 동안 토마스 삼촌은 우리에게 여러 지역을 보여 주었습니다. 카라치와 하이데라바드와 같이 사람 많고 자동차도 많은 발전된 도시도 가보았고, 반면에 생명이 자라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도 척박한 광야 같은 지역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지만, 가진 것마저도 기꺼이 우리와 나누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며 마음을 다하여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어느 시골 마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주변 환경은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고 인터넷도 안되는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기쁘게 살고 있었고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결혼식의 분위기는 기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토틀밥을 모아 예쁜 색깔로 물들여 바닥에 깔았는데, 결혼식 장식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혜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우리는 한 가족의 집으로 초대받았고, 진흙과 나무로 지은 집에서 그들이 즐겨 마시는 차(달콤한 우유 차)를 얻어 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와르 카미즈라는 전통 옷을 입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처럼 생겼고, 안에는 통이 넉넉한 바지를 입습니다. 제 눈에 그 옷이 참 멋져 보였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두 벌이나 얻었습니다. 그 나라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그들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는 서양식 옷을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전통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은 제가 사는 나라의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파키스탄 가톨릭 신자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 때 응답과 기도를 크게 바치고, 성가를 부를 때도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본당 사람들도 성가를 잘 부르지 않는 편인데,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키스탄 신자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보낸 시간은 놀랍고, 낯설고,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순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삼촌이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도 알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삼촌이 계속해서 이곳 사람들과 기쁘게 선교 생활하기를 희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파키스탄에 다시 가기로 했는데, 빨리 나이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

부활

안재선 제이슨 신부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시편 118편 참조). 부활절 미사 화답송입니다. 시편 작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했습니다. 자애는 절반만 채워진 것이 아니고 모든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자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 하면, 딱 1초 안에 십 년 전 남미 페루에서 겪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신학생 때 그곳으로 첫 해외 선교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잘못 받는 통에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건다가 남자들 세 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들은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맹장염에 걸렸는데,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칼을 가진 강도에게 또 털린 적도 있었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선교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떠나 1년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십자가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신학교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부

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시고 새 삶을 주시며 힘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인생과 신앙을 변화시키셨기에 저 또한 시편 작가와 같이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라고 찬송합니다.

저의 오른쪽 팔목엔 크고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할까 봐 두려웠지만, 지금은 팔목의 힘을 거의 되찾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서 하느님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처 자국이 있는 저의 오른손으로,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나와 싹트기 시작한 풀을 부활 상징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업은 제게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입은 손으로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림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이야기하시도록 잠시 머물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재선 제이슨 신부
Antiquera Jason

필리핀 출신으로 2015년 1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한국에 파견되었다. 제주교구 금악성당, 화북성당에서 사목했으며, 현재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팀, 예술사목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이슨, 〈부활〉, 2019년, 종이에 색연필

골롬반 선교잡지 『더파이스트』(극동, 1939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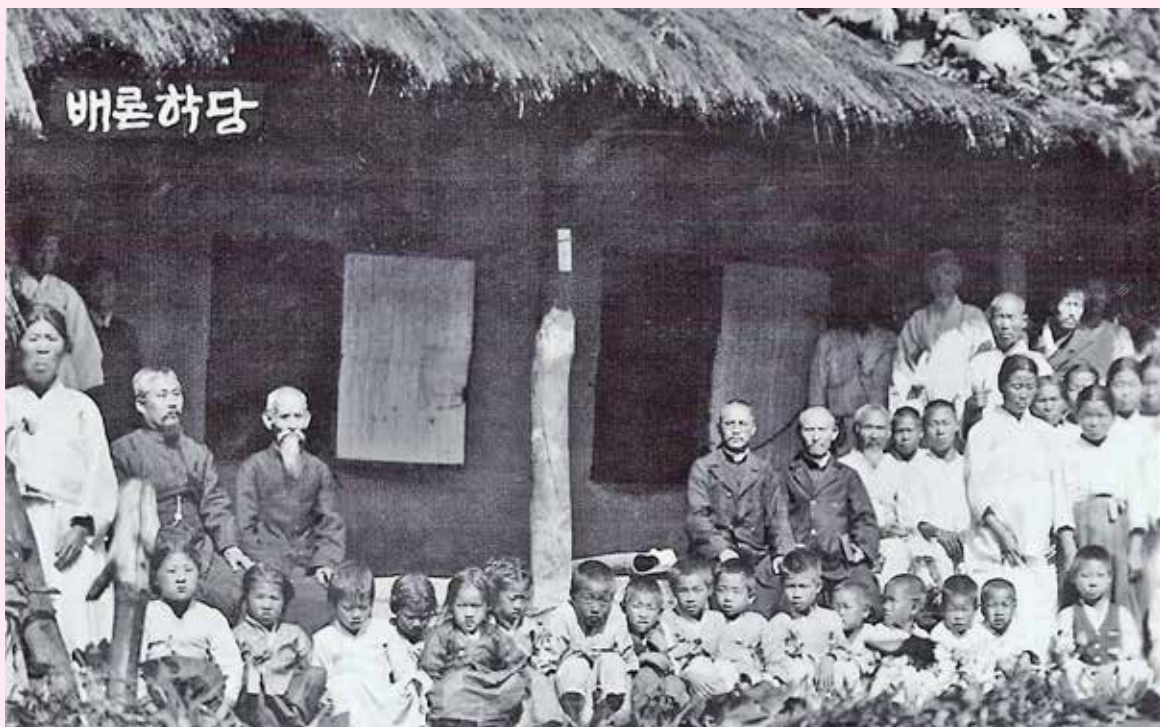
강원도 선교를 시작하며

구인란 토마스(Tomas Quinlan, 1896~1970) 주교

골롬반회가 앞으로 새롭게 활동할 이곳 강원도는 3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이 있고, 금강산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거친 산악지대인데다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다. 강원도에 9,000여 명의 천주교 신자가 사는데, 이들 대부분은 약 100년 전에 있었던 박해 동안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이곳의 산으로 피난 온 순교자들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조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 등 모든 것을 버렸다.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며, 모

진 박해를 겪은 조상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며 전승하고 있다. 한 성당에는 박해 때 쓰인 고문 도구가 보존되어 있는데, 미사 후에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느 공소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원도에는 성당 열한 곳이 있고, 한국인 신부 열두 명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그중 40년 넘게 이 지역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신학교인 배론학당의 옛 모습. 현재 충북 제천 원주교구 배론성지 안에 복원되어 있다. 1930년에 한국인 사제들과 본당 교우들이 방문했을 때 사진이며, 1939년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골롬반 선교잡지에도 실렸다.



골롬반회 선교사들(1936년, 목포). 초대 춘천교구장 임오웬 맥폴린 몬시뇰(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2대 춘천교구장 구인란 주교(앞줄 맨 오른쪽),

에서 일하는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올해 일흔 여섯 살로, 박해를 직접 겪었고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강원도 곳곳에 아름다운 성당과 공소를 지었다. 경성교구장(지금의 서울대교구장) 라리보 주교는 덕망 높은 이 노장 사제와 다른 신부들에게 강원도에서 활동을 시작한 우리 골롬반회를 도와주도록 당부하였다.

조선에 왔다가 죽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외로운 무덤이 강원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로마의 순교자나 초기 그리스도교 사제들만큼 위대하다. 이 지역에 조선 최초의 신학교 배론학당이 있다. 11년간 산골짜기 작은 오두막에서 조선인 신학생들이 기도하며 공부했다. 그곳에서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잡히고 순교를 향한 여정을 떠났다. 우리는 쉽사리 그들을 존경하지만, 망나니의 칼날에 목숨이 끊길 때까지 겪었던 고통을 듣게 되면 몸서리가 쳐질 것이다.

정말로, 고귀한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선임자들과 비교하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골롬반회가 강원도에서 새롭게 시작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자들의 핏속에 뿌려진 씨앗에서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독자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 디오니시오 신부

“이제부터 강원도 지방은 경성교구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춘천교구를 이루고 새로운 관리자를 모시게 되었으니, 로마전교성에서는 광주교구 림교구장(임오웬)에게 강원도에 새 교구장이 임명될 때까지 춘천교구를 관리하기를 명한지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림 교구장은 춘천교구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경성교구 주교는 강원도 지방에서 완전히 손을 떼노라. 비록 이렇게 두 교구로 나누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정만은 변함이 없으니, 두 교구 사이에 신부들과 교우들은 완전히 합심되고 또 이 합심은 영구히 계속되기를 축원하노라.”

- 1939년 6월 23일, 경성교구 라리보 주교가 강원도 모든 교우들에게 보낸 교구 설정 '효유서(曉諭書)' 중에서

1938년 교황청은 강원도 지역 사목을 성골롬반의 방선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골롬반회 구인란 토마스 신부와 마 마르티노, 손 파트리치오 신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4월 25일 자로 경성대목구(지금의 서울대교구)에서 분리시켜 춘천지목구를 설정하고, 초대 지목구장으로 광주지목구장 임오웬 맥폴린(골롬반회) 신부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구인란 신부(1955년 주교 수품)가 2대 지목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강원도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약 80명의 골롬반 선교사들이 60여 년간 춘천교구에서 일했습니다. 춘천교구에 21개 본당, 춘천교구에서 분리된 원주교구에도 12개 본당을 지었으며, 한국인 주교와 사제들에 의해 교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난 등 한국 역사의 아픔을 강원도 사람들과 함께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였습니다.

곤잘로야, 무얼 하고 있니?

권세오 곤잘로 신부



천안 불당동성당에서 일했을 때 본당의 날 행사에서(출처: 천안불당동성당)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 칠레에서 왔습니다. 여동생과 형이 있고,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201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정말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당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성당에 가면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수업도 빠지고 온종일 성당에 가서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권세오 곤잘로 신부

Gonzalo German Borquez Diaz

남미 칠레 출신으로 2016년 6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2017년 1월 한국에 왔다. 대전교구 천안불당동성당에서 활동했으며, 언어 연수를 마치고 청년사목을 준비하고 있다.

러던 어느 날, 한 수사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곤잘로야! 여기에서 무얼 하고 있니?” 저는 수사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면 주님께서 더 행복해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교실로 가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저를 일반 학교로 옮기셨습니다. 5학년 때 다시 가톨릭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때는 예수님 생각이 안 났고, 친구가 더 좋았습니다. 7학년이 되고 어느 날, 소신학교 신부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은 사제가 되고 싶었던 저는 소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너무나 그리워서 2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실컷 놀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도 잡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곤잘로! 엄마가 사고를 당했어!” 어머니는 비행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 성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찾아간 성당의 주임 신부님에게서 7학년 때 만났던 소신학교 신부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놀았으니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제가 되고 싶어 선교회를 알아보았지만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로 불러주신 걸까?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날, 골롬반회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 선교회로 부르신다면 이분들이 제게 답장을 주겠지요. 만약 응답이 없다면,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이튿날, 저는 간절히 기다리던 답장을 받았습니다.

신학생 때 선교 실습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외롭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체조배실에 들어가 기도드리면서, 예수님께 왜 저를 한국에 보내셨냐고 따지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기다려라. 너는 네가 한국에 있는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지금까지 기쁘게 지냅니다.

사제품을 받은 날,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국어 수업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청년사목을 시작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수업도 하고, 대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상담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가톨릭 청년들과 한국 본당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과 슬픔을 나누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

후원회

지역별 문의 방법

CMS 자동이체의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3월	4월	5월	6월	장 소	문 의
서울	8일	5일	10일	7일	돈암동 골롬반본부	02-929-2977
인천	12일	9일	14일	11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3일	10일	8일	12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8일	12일	10일	14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8일	25일	23일	27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6일	23일	28일	25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7일	24일	29일	26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8일	25일	30일	27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9일	26일	31일	28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4일	-	-	13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0일	17일	15일	19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19일	-	21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16일	-	18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서울

- ① 4월 5일(금) 오후 2시 십자가 경배 예식, 십자가의 길(본부 정원)
- ② 5월 10일(금) 야외미사(첫째 주 연휴로 한 주 미뤄짐)
 - 장소 미정
 - 출발 서울 돈암동
 - 신청 (02) 929-2977(선착순 마감), 회비 1만원(식대 포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제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춘천교구, 골롬반회에 감사패 수여

12월 1일, 춘천교구가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는 개막미사를 봉헌하며, 골롬반회에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교구장 김운희 주교는 춘천교구에서 활동하였던 황 프란치스코 신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1949년 초대 춘천지목구장으로 골롬반회 임오원 신부가 임명되었고, 이후 수많은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강원도에 파견되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춘천교구는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에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춘천 성골롬반의원과 삼척 성요셉의원, 성골롬반요양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의료 선교에 헌신한 수녀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후(왼쪽부터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총장 최혜숙 수녀, 부지부장 남승원 신부, 황 프란치스코 신부)

오록 신부,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 해외번역 공로상 수상

12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오록 케빈 신부(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해외번역 부문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오록 신부는 40여 년간 한국의 시와 소설을 해외에 널리 알려,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록 신부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에 오기 전, 선배들이 한국 사람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면서, 한국은 ‘말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50년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한국은 말씀의 나라입니다.”라며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안광훈 로벨도 신부의 활동을 소개한 방송 안내

배우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제5화 삼양동(서울 강북구) 편에서 삼양동주민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안광훈 로벨도 신부를 소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는 54년째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삼양동으로 들어가 살면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은 분은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이나 KBS 홈페이지에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입력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골롬반회 홈페이지 <사진과 영상>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권태문 신부 필리핀 파견

중국에서 활동했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필리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성의 해(수련 프로그램)를 담당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골롬반회 신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권태문 신부는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에서 영성학을 전공하였고, 선교지에서 영성 지도와 피정 지도를 해왔습니다.



노혜인 선교사 한국지부로 발령

노혜인 안나 선교사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 발령받아 3월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을 평신도선교사로 초대하고, 양성하며 파견하는 과정 등에 함께하게 됩니다. 노혜인 선교사는 2011년부터 필리핀에서 활동하면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열린미사에 초대합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서울 동소문동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열린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에는 메리놀외방전교회 지원사제로 대만에서 10년 동안 활동했던 김동원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2월에는 60년째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골롬반회 조 바드리시오 신부(사진)의 나눔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선교사와 함께 미사의 기쁨 나누는 자리입니다. 주일미사로 봉헌하는 열린미사는 종교, 신분,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열린미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교통편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문의 02-926-1217(골롬반선교센터)



한국지부 홈페이지 개편, SNS 소개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보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해외선교 활동 모습과 근황, 골롬반회 행사 안내, 선교 정보, 교회 소식 등을 알 수 있으니 자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골롬반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 주셔서 그들을 골롬반 선교의 장으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본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columbanmission.org)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SNS 주소 •

- 홈페이지 www.columban.or.kr
-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olumbankorea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 성소국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vocation

선종한 골롬반 사제들



한국에서 선교했던 두 분의 사제가 선종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가난한 이들과 벗하며 선한 목자로 살면서
한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두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한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성유진 에우제니오 Eugene Ryan 신부

1927년 7월 25일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1953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954년 한국 도착
2018년 12월 24일 아일랜드에서 선종,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지에 안장

제주교구 한림성당, 광주대교구 원동(송정리), 노안, 광주대교구 청 관리국장, 광주대교구 부주교, 서울대교구 신수동에서 사목했으며, 미국지부 관리국장, 본부 재정 담당으로도 일했습니다. 수맥을 찾는 기술이 있었던 성유진 신부는 물이 부족한 전라남도 마을에 우물을 찾아 주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온화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소유했던 성유진 신부는 한국 도자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과 한국 사람을 많이 사랑한 선교사였습니다.

정 레오 Lawrence Clarke 신부

1929년 1월 12일 아일랜드 델빈 출생
1953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954년 한국 도착
2019년 1월 30일 아일랜드에서 선종,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지에 안장

춘천교구 양양, 울진, 강릉 임당동,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 학성동, 용소막(신림), 영월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약 25년간 강원도에서 일하며 특별히 원주교구 설립과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원주교구 총대리로서 지학순 주교를 보좌하며 민주화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일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는 정 레오 신부의 재입국을 불허하였습니다. 한국을 사랑했기에 오랫동안 마음 앓이를 해야 했던 정 레오 신부는 이후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와 자메이카에서 일했습니다.

광주대교구에서 일했을 때 교구장 현 헤롤드 대주교(왼쪽)와 함께





첫 서약을 함으로써 유기회원이 된 골롬반회 신학생 심홍석 암브로시오, 진가람 요셉, 박요섭 요셉(사진 왼쪽부터)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평신도선교사 센터(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2) 929-4841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엣다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